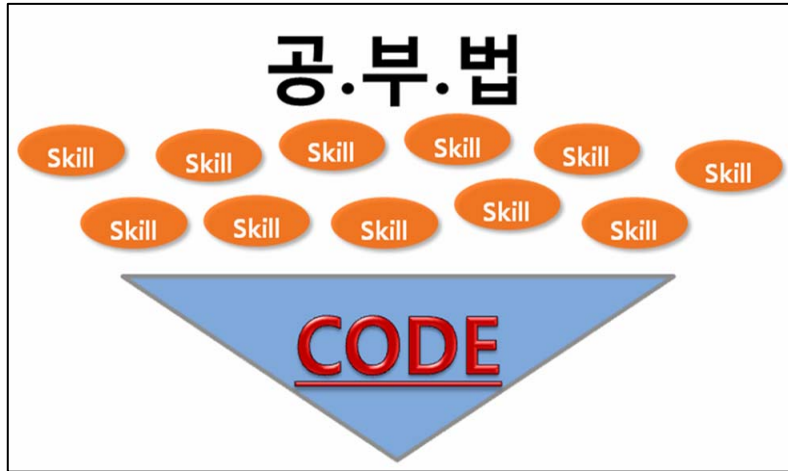


‘공부법부터 공부한다’ - 공부법 구조도

1. 공부법 = CODE +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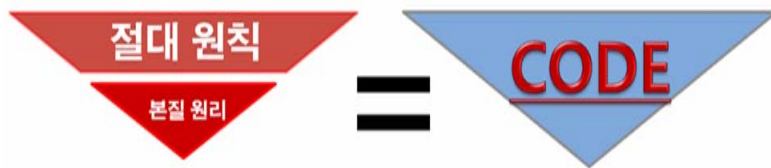


위 그림은 ‘공부법’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구조도이다. 공부법은 CODE와 Skill로 구성되어 있다. CODE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공부의 ‘본질 원리’와 ‘절대 원칙’을 의미한다. Skill은 CODE에 맞는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상황,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세부적인 공부 테크닉을 의미한다.

공부법이 완벽하다는 것은 ‘CODE를 꿰뚫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Skill을 선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CODE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스터디코드에서는 공부의 CODE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 CODE

본질 원리 + 절대 원칙 = CODE



2) Skill

CODE를 행동으로 옮긴 개인적인 공부 테크닉



‘지능적인 공부’ - 스터디코드 가치 및 강령

Study SMART!

- 무개념 공부와의 결별한다. 지능적으로 공부한다.

과정의 행복(따라서 모두 동사)

S: Save(효율) - 배신당하는 공부와 결별한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공부법을 익혀 지능적으로 공부하면 다시는 배신 안 당할 수 있다. 또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M: Master(지배) - 끌려 다니는 공부와 결별한다. 공부를 지배한다.

: 친구가 하는 대로, 학원이 시키는 대로 끌려 다니기만 했던 학생은, 공부법을 익혀 지능적으로 공부하면 공부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공부를 자기 중심으로 지배하며 이끌어 갈 수 있다. ‘소비자가 약자’임을 이용하는 사교육의 상술에 안 당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교육 비도 절감된다.

A: Assure(확신) - 막연한 공부와 결별한다. 확신 있게 공부한다.

: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맞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라며 확신 없는 학생은, 공부법을 익혀 지능적으로 공부하면 공부의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확신과 자신감이 생긴다.

결과의 행복(따라서 모두 명사)

R: Reversion(반전) - 역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전을 시작한다.

: S/M/A가 완비되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된다. 또한 끝까지 확신을 갖고 역전을 추구하게 된다.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된다. 또한 S/M/A가 반복되면 결국 ‘성적의 반전’이 일어난다. 성적뿐만 아니라 태도, 마인드 등 모든 면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공부법을 바꾼다는 것은 학원, 문제집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 전에 무엇을 시도하건, 무엇을 바꾸건 실패하기만 했던 학생에게는 ‘마지막 반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T: Triumph(대승리) - 최강의 학생이 된다. 최상위에 도전한다.

: 서울대와 같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조건 ‘공부지능’이 필요하다. 그것도 ‘최강의 공부지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대3121명에게서 뽑아낸 스터디코드를 통해, 학생은 단순한 반전을 넘어 최강을 넘볼 수 있다. 최강에 대한 희망, 도전의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제 최강 성공’을 맞볼 수 있다.

Live SMART!

- 지능적인 공부를 넘어, 지능적인 인생으로 나아간다